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적 판단에서 성(性)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을: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 ① 갑: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갑: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조건이다.
- ③ 을: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없다.
- ④ 을: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 을: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lt;보기&gt;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을: 원조는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lt;보기&gt;

- ㄱ. 갑: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ㄴ. 갑: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을: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⑤ 중 옳지 않은 것은?

## 서술형 평가

◎ 문제: 예술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을: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 예술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은 공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적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知的)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①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 ②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 생명체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 ③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하는가?
- ④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⑤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7.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여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의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 ①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이다.
- ②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이다.
- ③ 부부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④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 ⑤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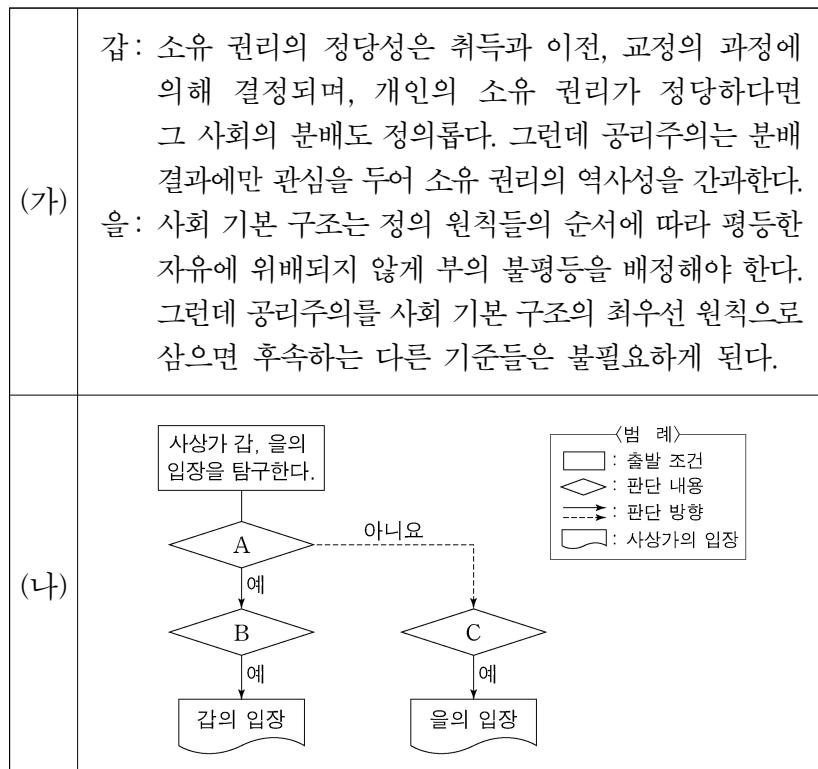
갑: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을: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 <보기>

-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ㄱ. A: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 ㄴ. B: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 공과(功過)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 ㄷ. C: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 ㄹ. C: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세대는 의무자가 된다.

<보기>

-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ㄹ. 현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을: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② 갑: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④ 을: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입니다. 이념을 떠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돋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을: 고통 받는 이들을 돋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아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을: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 ① 북한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가?  
 ②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가?  
 ③ 북한 사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④ 대북 지원은 조건부로 행해져야 하는가?  
 ⑤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14.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 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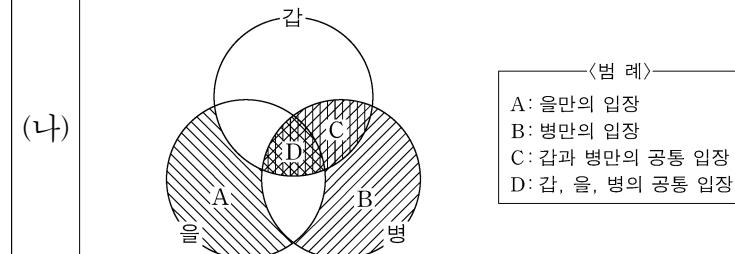
<보기>

- ㄱ. (가):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  
 ㄴ. (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ㄷ. (나):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ㄹ. (가), (나):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 갑: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쾌고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본능은 공동체 내에서 경쟁할 것을 촉구하지만 그의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촉구한다.



<보기>

- ㄱ. A: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ㄴ. B: 인간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ㄷ. C: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ㄹ. D: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가)~(다)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뜻있는 선비는 살아남고자 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다.
- (나)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착한 일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말고, 악한 짓을 행하여 형벌을 가까이하지도 말아야 한다.
- (다) 전생(前生)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가):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 ② (나): 인의(仁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③ (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가), (나):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 ⑤ (나), (다):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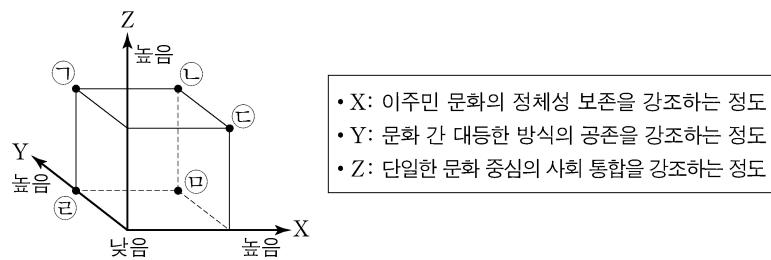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것입니다.



- ①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가?
- ②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 ③ 자본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 ④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 ⑤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①~⑤ 중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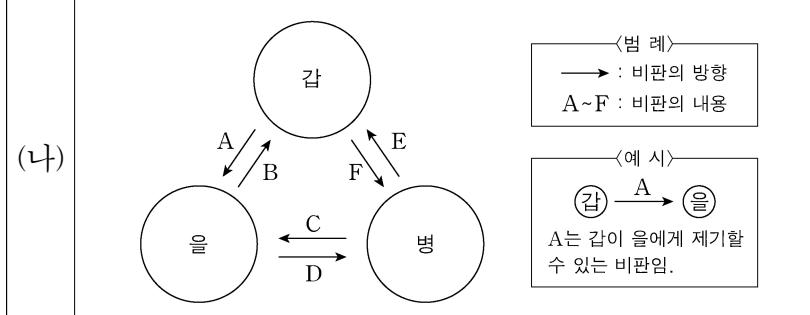
- (가) 국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민은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 (나)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⑦
- ② ⑧
- ③ ⑨
- ④ ⑩
- ⑤ ⑪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
|--|---|
|  | <p>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하며, 결코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p> <p>을: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사형보다 고통이 길게 유지되어 오랫동안 본보기로 기능하는 형벌이 필요하다.</p> <p>병: 사형은 죄인을 시민이 아닌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기하여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이다.</p> |
|--|---|



- ① A: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同害) 보복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D: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사회 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간과한다.
- ④ E: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 ③ 웃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